

얼음 깨기

Feedback

교회행사

현대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적응해야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신체적, 심리적 자극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기준이 모두 다를뿐더러 아주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목장모임이 쌓인 스트레스가 녹아지는 기쁨의 시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나에게 가장 긴장이나 혼란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요?
2. 긴장이나 피곤함, 혼란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3. 너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4월

7일 진공춧 양육 2기 시작

5월

5일 어린이 주일
“히즈쇼 뮤지컬”12일 김성중 교수와 함께하는
은세대 연합예배

경배 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소식

1. 기니비사우 성경

아프리카 최빈국 기니비사우에서 모슬렘 종족인 수수, 날루족 현지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광미정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인쇄 보급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 권당 1만원의 인쇄비와 배송비가 들어갑니다. 성경을 선물하는 사역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계좌 신청 134-004-691397 더온누리교회(기니비사우통장)

2. 결혼

이화신 집사, 이명희 권사 장녀 다경양과 더원공동체 박규래군의 결혼식이 4/27(토) 오전 11시 30분 더온누리교회 3층 레위의 장막홀에서 있습니다.

3. 찬양대원

2부예배 글로리아찬양대에서 소프라노파트와 엘토파트를 모집합니다.

선교

[남윤정 선교사]

필리핀

1. 교회 안에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고 경제적 지원, 교회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2. 성도들의 신앙이 더 깊어 지고 넓어지고 단단해 지도록
3. 여러 명의 탑승이 가능한 큰 차량을 구할 수 있도록
4.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문장 큰 울림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 뿐이다”

- 헨리 드루먼드 -

여호와께서 또 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신 31:23)

모세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준비가 신명기 31장의 핵심입니다. 모세의 떠날 준비는 삼중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모세를 대신하게 될 후계자를 뽑습니다(7~8, 14~15, 23절). 그리고 모세가 여태껏 전하고 가르친 것을 제도적으로 따르게 하는 장치인 율법책을 마련합니다(9~13, 24~29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를 노래를 만듭니다(31:30~32:43절).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는 장면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세의 리더십을 대체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1] 나는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유산인가요? 그 유산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1_여호수아를 세우고(23절)

모세의 죽음 준비는 먼저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세우는 일로 시작됩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크게 부각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하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이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부터 모세를 수종하였습니다.(출 33:11). 또한 모세의 지시를 받아 아말렉과 싸웠고 (출17:9-10, 13),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도 함께 갔습니다(출 24:13, 32:17). 여호수아가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민 27:28-29).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기를 원했고(민 27:18).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지정하신 것입니다(민 27:15-23).

신명기 31장은 하나님의 지명을 실천에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눔1] 나는 누군가의 후계자로 잘 준비되고 있나요?
[나눔2] 나는 지금 내 자녀들을 어떻게 여호수아로 키우고 있나요?

2_책과 노래를 남기고 떠나다(24-29절)

모세의 죽음 준비는 글과 노래를 남기는 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제 글로 적어서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곱 해마다 토라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읽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어린이, 성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모세의 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세대에서 세대를 잇게 됩니다. 말과 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글이 말보다 오래가고 정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껏 말로 전해지던 말씀이 글로 기록되는 까닭은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의 책과 노래를 통해 패역한 이스라엘을 대대로 바로잡기 위한 증거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 31:19)”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신 31:21)”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케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 31:26)”

모세는 기록한 율법책을 언약케 곁에 두어 이스라엘의 증거가 되게 합니다(24-29절). 이러한 조치의 의미는 먼저 율법책이 언약케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뜻이고, 둘째는 율법책은 십계명과 더불어 살피야 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언약케처럼 율법책 역시 시공을 초월하여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남긴 책과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읽고, 해석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 역동적인 말씀으로 대대손손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1]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나눔2]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기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나눔

[세우고 남기며 떠나기 / 신명기 31:14-29]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순종함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순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민감함

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